

CuO-Magnetite 및 ZnO-Magnetite 촉매상에서 CO₂ 분해반응속도론

양천모 · 임병오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Kinetics of CO₂ decomposition over CuO-Magnetite and ZnO-Magnetite catalysts

Yang, Chun-Mo · Rim, Byung-O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Hong-Ik University

ABSTRACT

Cu_xFe_{3-x}O₄ catalyst and Zn_xFe_{3-x}O₄ catalyst were synthesized by the air oxidation method with various Cu(II) and Zn(II) weights. Activated catalysts decomposed carbon dioxide to carbon at 350°C, 380°C, 410°C and 440°C. The value of carbon dioxide decomposition rate for Cu_{0.003}Fe_{2.997}O₄ and Zn_{0.003}Fe_{2.997}O₄ catalysts than was better catalysts. The decomposed rate of the catalysts is about 85%~90%. The reaction rate constant(4.00 psi^{1/2}/min) and activation energy(2.62 kcal/mole) of Cu_{0.003}Fe_{2.997}O₄ catalyst are better than Zn_{0.003}Fe_{2.997}O₄.

I. 서 론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이다. 이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회수 및 재활용하는 문제는 범세계적인 규제에 대비하여 전세계의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원의 전환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대기중의 CO₂ 증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적어도 CO₂를 고정화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이 확립되어야만 현재의 CO₂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한 주 영향은 지구의 기후변화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기상이변, 생태계의 변화 및 해수면의 상승을 초래하여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과학자들에 의하면 평균기온이 섭씨 5도 이상 증가하면 지구의 대변혁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기중의 CO₂ 농도가 현재의 2배로 증가되면 평균기온이 1.5~4.5도

정도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지구온난화 가스 중에서 상대적인 기여도가 높은 CO₂에 대한 규제가 절실히 설정이다.^{1~4)} CO₂를 고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 접촉수소화법은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CO₂를 전이금속 산화물에 의해 고정화시키고, 다른 탄화수소화합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산화법^{6~9)}에 의하여 Cu_xFe_{3-x}O₄ 및 Zn_xFe_{3-x}O₄를 합성하고, 이것을 촉매로 하여 이산화탄소의 분해와 관련된 촉매의 특성과 수소로 활성화된 촉매(M_xFe_{3-x}O_{4-s}, M=Cu(II) or Zn(II))에서 δ값과 CO₂의 분해율과의 관계, CO₂분해반응속도론에 대해 연구하였다.

II. 실험방법

1. 촉매의 합성.

$\text{Cu}_x\text{Fe}_{3-x}\text{O}_4$ 및 $\text{Zn}_x\text{Fe}_{3-x}\text{O}_4$ 촉매의 합성방법은 전보⁵⁾와 동일하고, magnetite에 첨가된 Cu(II), Zn(II)의 확인, 정량 및 촉매의 화학적 조성을 규명하기 위해 원자흡광분석(atomicabsorption spectroscopy, 한국베리안)을 하였다. 합성촉매의 정성과 결정구조의 분석을 위해 X-선 분말회절장치(Monochromator CuK α radiation, 40KV, 30mA, 2θ : $20^\circ \sim 80^\circ$, MAC Science)를 사용하였다. 합성촉매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Co, S-2500C)으로 관찰하였다. 수소로 3시간 동안 환원된 촉매, 즉 활성화된 촉매($\text{M}_x\text{Fe}_{3-x}\text{O}_4$, M=Cu(II) or Zn(II))에서 δ 의 측정을 위해서 열중량 분석법으로 TGM1000+(thermogravimetric analysis, Rheometric Scientific Ltd)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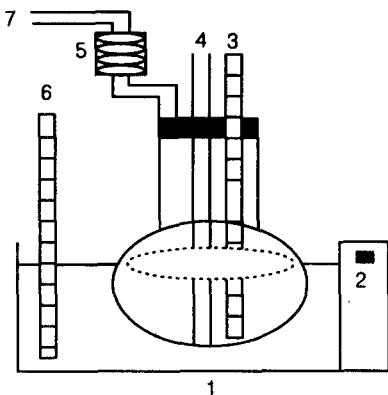


Fig. 1. Schematic diagram of reaction apparatus for the synthesis of catalyst
1. Water bath 2. Temperature controller
3. Thermometer 4. Air inlet 5. Condenser
6. Thermometer 7. Air out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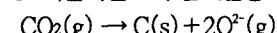
Fig. 1은 촉매합성장치이다.

2. 촉매의 활성화, 이산화탄소의 분해반응.

100°C의 전조기에서 24시간 동안 전조된 촉매 3g을 stainless steel로 제작한 반응기에 넣고, 350°C의 전기로에서 수소를 100cc/min의 유속으로 3시간 동안 흘려 반응기 안의 촉매를 활성화 시켰다. 촉매의 활성화 상태를 $\text{Cu}_x\text{Fe}_{3-x}\text{O}_4$ 와 $\text{Zn}_x\text{Fe}_{3-x}\text{O}_4$ 로 표시한다. 그 후 수소의 유입을 차단하고, 약 20psi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반응기에 유입 시킨 후 이산화탄소의 분해반응에 의한 반응기 내부의 압력강하를 측정하였다.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위와 동일한 이산화탄소 분해조건에서 반응온도를 380°C, 410°C, 440°C로 하여 이산화탄소 분해반응을 실시한 후 Arrhenius식을 이용하여 구했다.

xO_4 로 표시한다. 그 후 수소의 유입을 차단하고, 약 20psi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반응기에 유입 시킨 후 이산화탄소의 분해반응에 의한 반응기 내부의 압력강하를 측정하였다.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위와 동일한 이산화탄소 분해조건에서 반응온도를 380°C, 410°C, 440°C로 하여 이산화탄소 분해반응을 실시한 후 Arrhenius식을 이용하여 구했다.

3. 이산화탄소의 분해반응속도론.



위의 기상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론을 해석하기 위해 다음의 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비선형최소자승오차법으로 구하였다.

$$\frac{dp}{dt} = k' (2P_0 - P)^\alpha \quad (1)$$

위의 식을 정리하면

$$\ln \left(\frac{dp}{dt} \right) = \alpha \ln(2P_0 - P) + \ln k' \quad (2)$$

(k' : 반응속도상수, α : 반응차수)

III. 실험결과 및 고찰.

1. $\text{Zn}_x\text{Fe}_{3-x}\text{O}_4$ 및 $\text{Cu}_x\text{Fe}_{3-x}\text{O}_4$ 촉매의 특성.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catalysts.

Catalyst	Chemical composition	Catalyst	Chemical composition
C01	$\text{Cu}_{0.03} \text{Fe}_{2.97} \text{O}_4$	Z01	$\text{Zn}_{0.00} \text{Fe}_{2.97} \text{O}_4$
C02	$\text{Cu}_{0.02} \text{Fe}_{2.98} \text{O}_4$	Z02	$\text{Zn}_{0.03} \text{Fe}_{2.97} \text{O}_4$
C03	$\text{Cu}_{0.05} \text{Fe}_{2.95} \text{O}_4$	Z03	$\text{Zn}_{0.08} \text{Fe}_{2.92} \text{O}_4$

Table 1은 원자흡광분석에 의한 합성한 촉매의 화학적 조성이다. 모든 촉매에서 spinel type의 구조를 나타내었고, 그 밖에 다른 철 산화물에 해당되는 peak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촉매의 합성시 산화를 위한 air bubbling의 시간(20hr), air bubbling의 온도(50°C), 당량비($\text{R}=2\text{NaOH}/\text{FeSO}_4=1$) 등 반응조건이 적절했다고 판단되며, Cu(II)와 Zn(II)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2\theta=35.4^\circ$ 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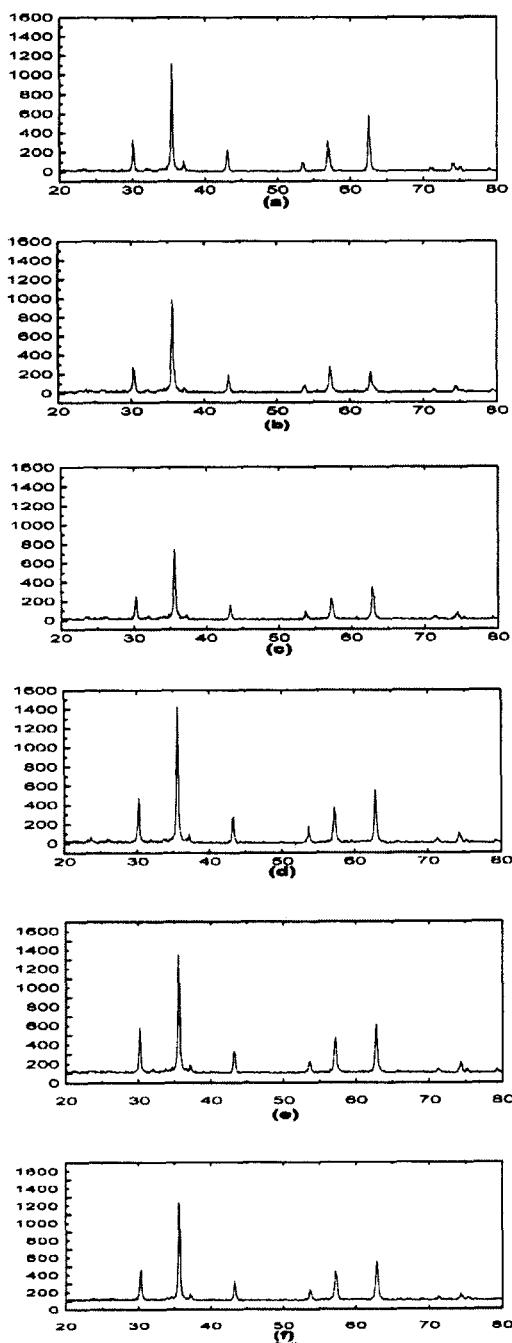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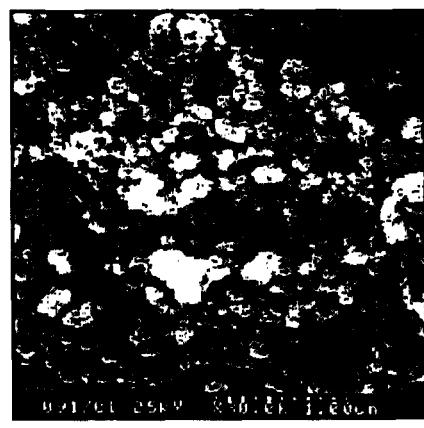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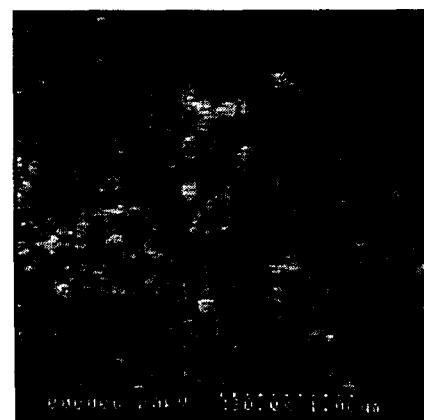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magnetite prepared for various Zn(II) and Cu(II).
 (a)C01 (b)C02 (c)C03 (d)Z01 (e)Z02 (f)Z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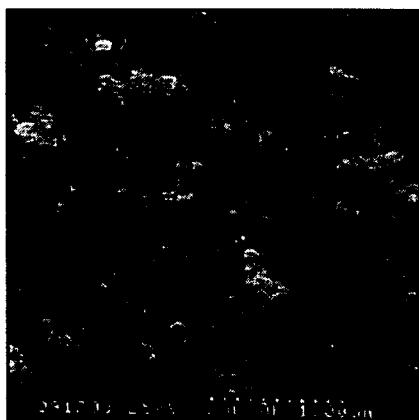
spinel type 제1peak의 intensity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는 X-선 회절분석결과이다. 이것을 이산화탄소의 실제 분해율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때 분해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활성화 인자(δ in $M_xFe_{3-x}O_4\delta$, M=Cu(II) or Zn(I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XRD 분석에서는 Cu(II)와 Zn(II)에 해당하는 peak는 없었다. Cu(II)와 Zn(II)가 spinel type의 Fe(II) 자리에 치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3에서 보듯이 $Cu_{0.003}Fe_{2.997}O_4$, $Zn_{0.003}Fe_{2.997}O_4$ 촉매는 구상의 입자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Cu_{0.02}Fe_{2.98}O_4$, $Zn_{0.02}Fe_{2.97}O_4$ 촉매는 구상과 육면체의 입자모양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Cu_{0.05}Fe_{2.95}O_4$, $Zn_{0.08}Fe_{2.92}O_4$ 촉매에서는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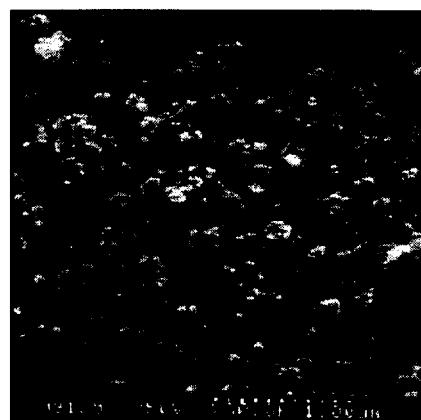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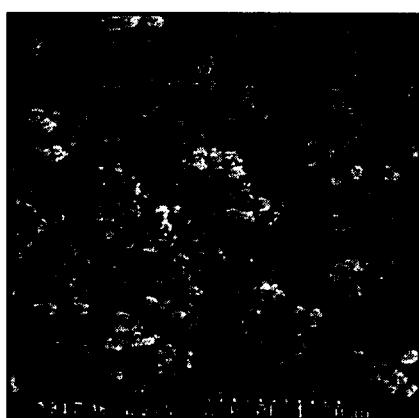
(b)



(c)



(f)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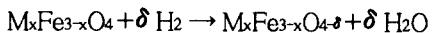
(e)

Fig. 3. SEM photographs of
 (a) C01 (b) C02 (c) C03 (d) Z01 (e)
 Z02 (f) Z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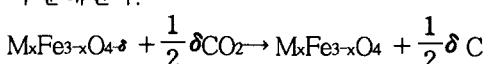
의 입자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육면체의 입자모양만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은 각 촉매의 미세구조이다. Cu(II), Zn(II)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모양이 구상에서 육면체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자의 크기는 모든 촉매에서 약 0.1 μm 로 관찰되었다. 위의 관찰 결과에서 $\text{Cu}_x\text{Fe}_{3-x}\text{O}_4$, $\text{Zn}_x\text{Fe}_{3-x}\text{O}_4$ 촉매는 구상입자이어야 이산화탄소의 우수한 분해율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분해율과 입자의 크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2. 이산화탄소의 분해효율.

합성한 촉매($\text{M}_x\text{Fe}_{3-x}\text{O}_4$, $\text{M}=\text{Cu}(\text{II})$ or $\text{Zn}(\text{II})$)는 산화하면 $\text{M}_x\text{Fe}_{3-x}\delta\text{O}_4$ 로, 환원하면 $\text{M}_x\text{Fe}_{3-x}\delta$ 로 표현할 수 있다. 촉매를 수소분위기에서 환원하면 산소가 결합된 형태. 즉, 활성화된 촉매($\text{M}_x\text{Fe}_{3-x}\text{O}_{4-\delta}$, $\text{M}=\text{Cu}(\text{II})$ or $\text{Zn}(\text{II})$, $\delta>0$)가 된다.



이산화탄소가 $\text{M}_x\text{Fe}_{3-x}\text{O}_{4-\delta}$ 와 접촉하면 아래와 같이 분해된다.



이것은 불안정한 화합물인 $\text{M}_x\text{Fe}_{3-x}\text{O}_{4-\delta}$ 의 빈(vacancy) 산소자리(δ)에 이산화탄소의 산소(O^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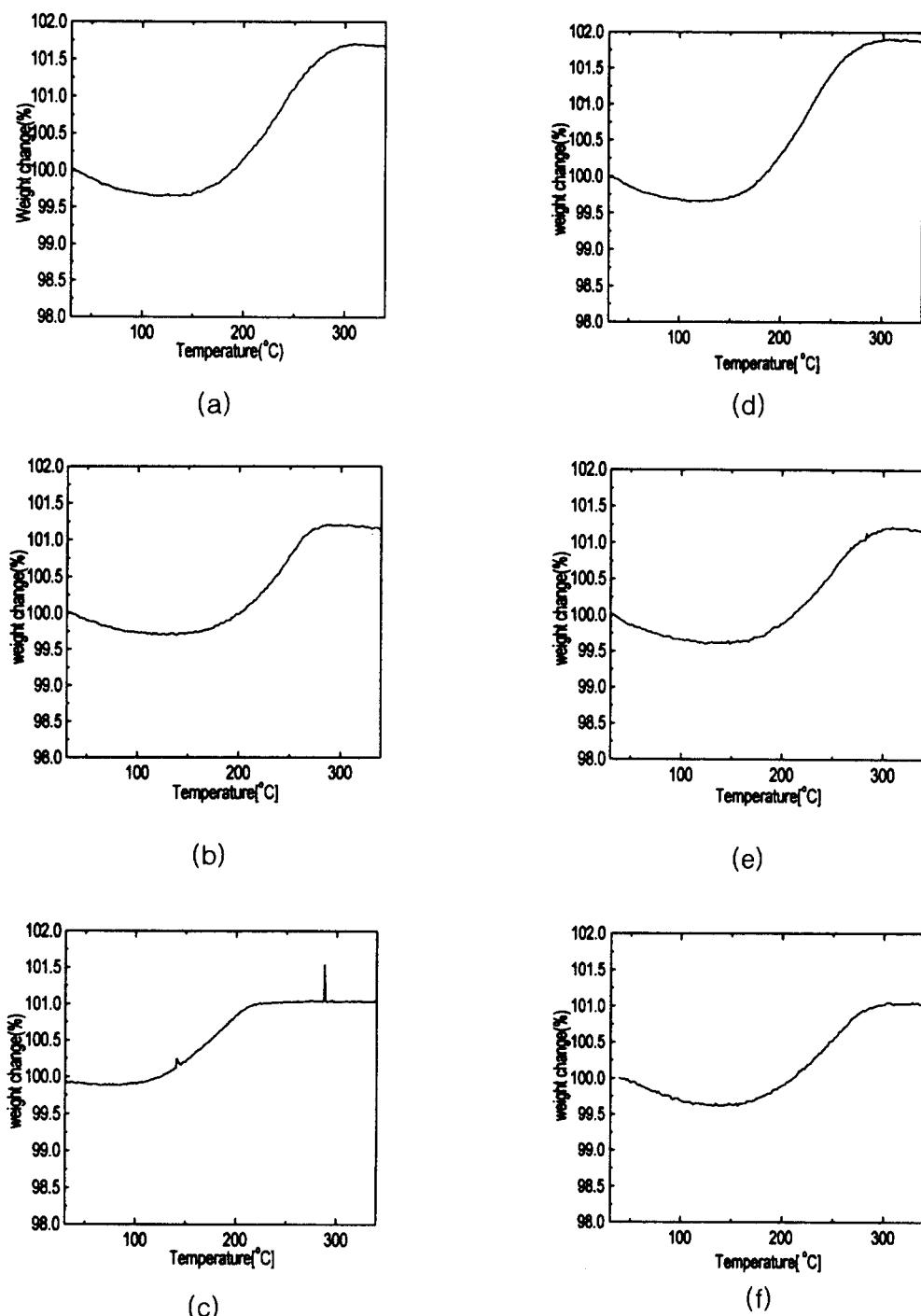


Fig. 4. TGA curves of activated (a)C01 (b)C02 (c)C03 (d)Z01 (e)Z02 (f)Z03

가 들어가 안정한 상태의 spinel type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활성화된 촉매의 활성화 인자(δ)를 구하기 위해 열중량 분석한 결과이다. Fig. 4에서 보듯이 100°C까지의 중량감소는 반응기에서 TGA로 읊기는 과정에 흡착된 흡착수의 증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150°C~300°C까지는 $M_xFe_{3-x}O_4\cdot\delta$ 에서 δ 자리로 들어가는 산화반응에 의한 중량증가로 판단된다. 300°C 이상에서는 산화반응이 완료되어 더 이상의 중량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Table 2는 수소로 환원된 촉매, 즉, 활성화된 촉매($M_xFe_{3-x}O_4\cdot\delta$ M=Cu(Ⅱ) or Zn(Ⅱ))에서 δ 값과 이산화탄소의 분해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에서 알 수 있듯이 δ 값이 커질수록 이산화탄소의 분해율(%)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Activated factor(δ) and the CO_2 decomposition rate of catalysts.

Catalyst	δ in $Cu_xFe_{3-x}O_4\cdot\delta$	DR(%)	Catalyst	δ in $Zn_xFe_{3-x}O_4\cdot\delta$	DR(%)
C01	0.32	90	Z01	0.32	85
C02	0.21	70	Z02	0.23	75
C03	0.16	50	Z03	0.19	55

3. 이산화탄소의 분해반응속도론.

이산화탄소의 분해율이 우수한 C01과 Z01의 경우, 식 (2)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분해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고찰을 한 결과, 비선형최소자승오차법으로 온도에 따른 속도상수, 반응차수를 구하고, Arrhenius 식을 이용해 얻은 활성화 에너지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다른 온도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최적분해온도인 350°C에서 반응속도상수가 크고, 활성화 에너지는 C01촉매가 Z01촉매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분해되어 생긴 산소이온이 촉매의 산소결합자리로 이동 할 때, 350°C에서 C01촉매내에서의 산소이온 이동도가 더 빠르다고 판단된다. 즉, 이산화탄소의 분해반응속도는 최적분해반응 온도(350°C)에서 산소이온의 이동도가 가장 빠르고, 이는 이산화탄소의 분해반응속도와 밀접

Table 3. Rate constant and order of reaction and activation energy.

Catalyst	Temperature(°C)	Rate constant (psi ^{1/2} /min)	Activation energy
C01	350	4.00 / 1.54	2.62 kcal/mole
	380	2.47 / 0.97	
	410	4.09 / 1.47	
	440	2.25 / 1.66	
Z01	350	3.10 / 0.98	3.52 kcal/mole
	380	1.57 / 0.61	
	410	1.54 / 0.58	
	440	2.16 /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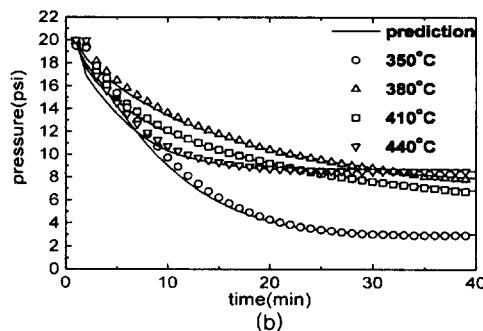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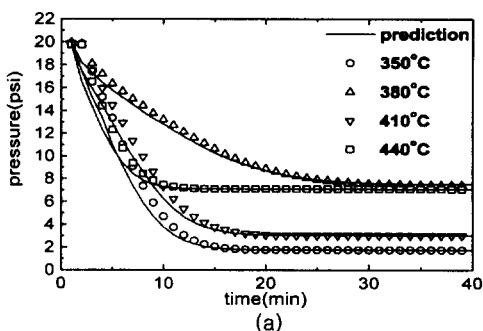


Fig. 5. Kinetic graphs of CO_2 decomposition over C01 and Z01 (a) C01 Z01

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 5는 C01촉매와 Z01촉매에 대해서 비선형최소자승오차법에 의해 나타낸 반응속도 그래프이다. (14) 온도가 높아지면 격자결합을 중심으로 한 원자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때문에, 산소결합을 이용해서 원자가 움직인

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의 움직임이 빨라진다고 판단된다.

IV. 결 론

1. Cu_xFe_{3-x}O₄(0.003<X<0.05), Zn_xFe_{3-x}O₄(0.003<X<0.08)에서 Cu(II)와 Zn(II)의 양이 증가할수록 spinel type 제1peak($2\theta=35.4^\circ$)에서의 intensity가 감소하였고, 입자모양은 구상에서 육면체로 변하였다.
2. Cu_{0.003}Fe_{2.997}O₄, Zn_{0.003}Fe_{2.997}O₄ 촉매의 활성화 인자(δ)의 값이 0.32 일때 이 촉매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분해율이 85~90 %로 우수하였다.
3. 이산화탄소의 분해율은 활성화된 촉매(M_xFe_{3-x}O₄, M=Cu(II) or Zn(II))의 활성화 인자 (δ)와 비례하였다.
4. 350℃에서 C01촉매가 Z01촉매보다 이산화탄소의 분해반응 속도상수와 활성화에너지 면에서 4.00 ps⁻¹/min, 2.62 kcal/mole로 우수하였다.

* 본 연구는 1998년도 흥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참 고 문 헌

1. 이규환, “지구온난화대책”, 화학공업과 기술, vol. 13(4)(1995).
2. 박상언, 정종선, 이규환, “탄화수소 개질에 의한 이산화탄소 재활용”, 화학공업과 기술, vol. 12(1)(1994).
3. “오존층 보존관련 법령집”,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5월(1992).
4. 이상영, 이재성,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재활용”, 산업과학기술연구소(1993).
5. Chun Mo Yang, Byung O Rim, “Synthesis of CuO-Magnetite and ZnO-Magnetite catalysts for CO₂ decomposed reaction”,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vol. 15, 67~75(1998).
6. Yutaka Tamaura, “The Formation of V-bearing ferrite by aeration of an Aqueous Suspension”, *J. inor. chem.*, vol. 43, 671~675(1981).
7. Takashi Katsura, “The Formation of Oxidized Fe₃O₄-Fe₂TiO₄ Solid Solution by the Aqueous Suspension”, *Bulletin of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vol. 52(1), 96~100(1979).
8. Masao Kiyama,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Compounds Consisting of BaO and Fe₂O₃ from Aqueous Suspensions”, *Bulletin of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vol. 49(7), 1855~1860(1976).
9. Masao Kiyama, “Conditions for Formation of Fe₃O₄ by the Air Oxidation of Fe(OH)₂ Suspensions”, *Bulletin of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vol. 47(7), 1646~1650(1974).
10. K. Akanuma, “Carbon dioxide decomposition into carbon with the rhodium-bearing magnetite activated by H₂-reduction”,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28, 860~864 (1993).
11. Masahiro Tabata, “Reactivity of oxygen-deficient Mn(II)-bearing ferrites (Mn_xFe_{3-x}O₄, 0≤x≤1, δ>0) toward CO₂ decomposition to carbon”,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28, 6753~6760(1993).
12. H. Kato, “Decomposition of carbon dioxide to carbon by hydrogen-reduced Ni(II)-bearing ferrite”,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29, 5689~5692, (1994)
13. M. Tabata, “CO₂ decomposition with mangano-wustite”,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29, 999~1003(1994).
14. Tadataka Tamaura, “Complet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to carbon using cation-excess magnetite”, *Nature.*, vol. 346, 255~256(1990).